

「성서적 정치」

(James W. Skillen 저 / 채은하 역)

이홍용

기독교 신앙과 정치 참여 사이의 문제는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온 논쟁 테마 중의 하나이다. 세상 속에서 현실적 삶을 영위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정치생활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는 본서의 저자 스킨렌에게 있어서도 기본적 문제의식이 되고 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사회적 책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여러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스킨렌은 성서계시와 정치 생활, 기독교 신앙과 인간이 만든 정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주장하고 편협한 이분법적 신앙과 세속적 정치관을 탈피하여 삶의 전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하고 정책을 철저히 심의할 뿐 아니라 선택하는 모든 일이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함임을 지적한다. 신앙과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반대하는 스킨렌의 입장은 정의로

은 정치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위이고 책임일 뿐 아니라 그것은 우주적 권위를 선포하신 왕되신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런 응답이며 겸손한 순종이라는 주장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 스킨렌이 볼 때 미국의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신념 가운데 발견되는 내재적 한계와 모순은 신앙과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편협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협성은 결국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사회, 정치적 입장을 형성하고 전개, 발전시키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저자 스킨렌이 위와 같은 기본적 전제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적 정치의식에 대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직적인 모임을 통해 정의로운 정치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모색을 시도한 것이 이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우선 그리스도인의 현실정치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한 신학적 이론논쟁을 다룬 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머리말에서 소수의 인원이 그들을 형성해서 기독교 신앙과 정치적 의무와의 관계에 대해 실제적 토론을 효과적이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본서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신학적 이론서라기보다 실제적인 연구 지침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먼저 1장에서는 신앙과 정치를 '영'과 '속'으로 분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분법적 사고와 태도가 성서적 신앙에 뿌리 박지 못한 잘못된 접근임을 밝히고 있다. 기독교의 본질이 비정치적이어야 함을 단숨히 고집하여 정치를 배격하거나 반대로 기독교를 정치적인 것으로 동일시하는 인본주의적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를 타파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2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이 성경적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행동인 정치활동이 하나님께서 규범으로 정하신 공의와 정의에 관한 인간의 응답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응답은 한 분이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섬김으로서 겸손히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 나아가 정부의 각 부분들은 다원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규범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함을 3장에서 지적한다. 규범적 가치로서 공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나 사회 이익단체의 부분적 이익보다 차원 높은 보호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활동이 제한적 편협성을 띠어 이익단체 중심이거나 국수주의적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부름과 사역은 보편성을 띤 세계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

5장과 6장에서는 주로 실천적인 정치운동의 실체로서 1970년 미국에서 창립된 사회정의협회(the Association for Public Justice: APJ)의 설립 취지와 주요 전문 분야를 소개 설명하고 있다. 정치생활의 주체인 시민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일과 정치적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 그리고 국가 의사결정의 주체인 정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모든 일이 서로 연대하여 공공영역에서 정의의 체계적 통합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조직의 정치행위가 눈 앞의 시급한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원리원칙이나 역사적 주위환경을 무시하는 일회적 행동주의에 빠지거나 반대로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매달리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독교적인 원리원칙에 따라 기독교적인 정치 방법으로 행동 실천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규범적 말씀이 사회정의협회의 궁극적 권위가

되기 때문에 목적이나 조직 및 활동이 다른 사회단체나 정당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끝으로 이 책의 마지막 7장에서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공의를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치활동 가운데 특히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임스 스킨렌의 본 저서가 역사적 조건과 정치문화적 상황이 다른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되신 공의의 주님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섬기고 또한 그 공의의 부름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으로 제기되는 물음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사회정의협회>에 관한 이야기들은 비록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진 한국 기독교 단체들의 정치 사회활동에도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서의 구성이 신학적 문제 제기에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드러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대립의 혼란을 피할 수 있고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과 제안이 마련되어 있어 소그룹 안에서 실용적으로 이 책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겠다.